

강진군, 벼 병해충 적기 방제 실시 당부



강진군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적기 병해충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여 온·습도가 높고, 비례해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 가능성 높아

농업인 6200여명 대상 5억3000만원 약제 구입권 배부

총 발생량 증가 등 병해충에 의한 벼 피해가 우려된다. 이 기간 중에는 흑명나방, 이화명나방, 먹노린재, 도열병 및 잎집무늬마름병 등을 중점으로 눈을 잘 살피고 병해충 발생 초기에 종합방제를 해야한다.

특히 도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크므로 이삭이 한두 개 패기 시작할 때쯤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야 한다. 또, 잎도열병이 발생한 포장은 이삭이 패기 전까지 전용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금년에는 특별히 도비를 추가 확보해 벼 재

배면적 전체에 해당하는 관내 벼 재배농업인 6,200여 명을 대상으로 5억 3000만 원 상당의 약제 구입권을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병해충 발생 상황 분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벼 병해충 방제 기술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오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오전 10시부터 진도군청·진도명품관 주차장

진도군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혈액 수급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혈액원)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헌혈 행사는 오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도군청 민원실 앞 주차장과 진도명품관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진도군의 올해 헌혈 계획은 4회이지만 기관·사회 단체 등 군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수시로 헌혈에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산 전복 활용 가정간편식 개발 업무 협약 체결

아라온 영어조합법인과 혼연 전복 제품 개발하여 기술 이전 계획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박희연)는 지난 7월 6일 아라온 영어조합법인과 제품 개발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간편식인 혼연 전복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할 계획으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한편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해양수산

부에서 지원하는 「전남해양수산 창업 투자지원센터」 사업을 수주하여 수산 기업 발굴 및 육성,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매출·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해양수산 창업 투자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총 66억 원을 투입, 고용 창출 925명, 매출 증대 854억

원, 수출 2,542만 불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16억 원의 사업비로 전남 지역의 42개 기업을 발굴하여 밀착 지원을 통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엔 아라온 영어조합법인대표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한 제품과 기 확보된 완도산 전복 유통망을 발판삼아 신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전라남도 내 수산기업에 가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이전 및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농식품부, 살고 싶은 농촌공간 '농촌협약' 체결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공모사업비 27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국가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촌협약은 농촌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던 기존의 단위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북부생활권인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촌협약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278억 원(국비 188억, 군비 90억)이 투입된다.

군은 장평·유치·부산면 등 3개면에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13가지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365 생활권을 조성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산 마늘·절임배추, 서울 강서시장서 본격 판매 준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장 해남 현장 방문



해남군이 서울 도매시장을 통한 해남 농산물 판매 촉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이니세 지사장을 비롯한 강서시장 관계자들이 해남군의 마늘, 절임배추, 고구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가공 현장을 방문했다.

해남군과 해남군 품목별생산자단체협의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7개 기관·단체 지난달 16일 도농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도매시장을 통한 해남 농산물 공급 및 유통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도·농 상생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마늘과 절임배추의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육천농협 깬마늘 공장과 북평면 소재 절임배추가

공공장, 화산면 소재 고구마 밭 견학 등이 이루어졌다.

해남군은 업무협약의 실행을 위해 이번달부터 협약기관 실무책임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서울 강서시장과 시범사업을 통해 50억여원의 농산물 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배추, 양파, 고구마 등 품목과 판매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에 참여한 이니세 강서지사장은 "대한민국 최대 경작지를 보유한 해남군과의 업무협약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해남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